

전자서적 서비스 업체 잇따라 등장

저작권 확보, 카드 보안 문제 등 선결과제 많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출판사, 사이버서점, 벤처기업 등이 경쟁적으로 전자서적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아직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래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을 확보한 출판사가 전자서적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출판사로는 영진닷컴(대표 이문칠), 초록배매직스(대표 김순광), 박영출판사(대표 박영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영진닷컴은 자사에서 출간한 3천여종의 컴퓨터 관련 서적과 수험서를 화상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마스터 류승현씨는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등이 일반화되면 전자서적 판매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과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록배매직스는 '바로북'이란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만화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영출판사는 오는 4월부터 자사에서 출간하는 250여종의 서적을 서비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관리팀 원진섭씨는 "복사, 카드결제에 따른 문제 등이 해결되면 전자서적 서비스는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서점과 벤처기업도 참여해

사이버서점도 전자서적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수 사이버 서점 예스24(www.yes24.com)는 '웹폭스'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무렵지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정보컨설팅(대표 강현근)은 사이버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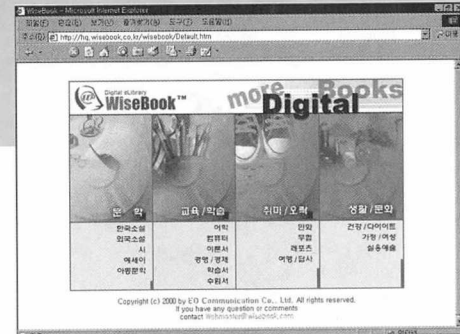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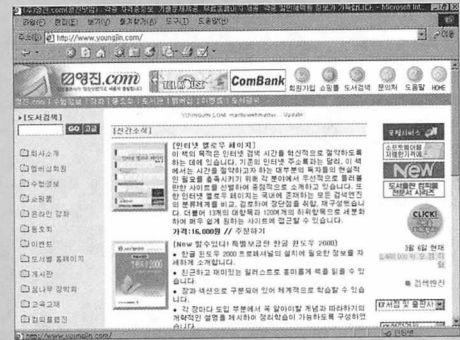
DC50(www.dc50.com)을 통해 대학교재와 단행본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서울정보컨설팅은 PC에 뷰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의 전자서적 서비스를 시작하고,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북토피아(www.booktopia.co.kr)는 이미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이문구)는 벤처기업 이오커뮤니케이션과 손잡고 문학계간지 《내일을 여는 작가》를 봄호부터 전자출판 디지털 포털 사이트(www.wisebook.com)를 통해 종이책의 4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 확보, 카드 보안책 등 선결해야

전자서적 서비스 업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저작권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다. 서울정보컨설팅의 강대표는 "저작권 확보가 난제다.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넘겨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종이책을 만들 때, 디지털 북도 함께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서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이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반즈앤노블'이 전자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70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 개인 휴대용 기기



인터넷 시대를 맞아 전자서적 서비스업체가 속속 등장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영진닷컴과 와이즈북의 초기화면.

(PDA, 전자책을 보기 위한 단말기 등)를 구입하는 비용도 아직 비싼 편이다.

카드결제에 따른 보안책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서점의 대다수가 카드결제에 따른 보안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누출돼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영진닷컴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카드보안업체인 베리사인과 제휴했다.

한편, 전자서적 서비스를 위해 업체마다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중복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진닷컴의 웹마스터 류승현씨는 "국가에서 전자서적 서비스센터를 만들어 개별 회사에 인증서를 발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오원진 기자